

# 늘어난 평균수명... 86%가 “재산 사후 상속하겠다”

40대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재산 전부를 사후에 상속하겠다는 의중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생전이 아니라 사후에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만 40세 이상의 보유 자산 5억원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속 및 상속형 신탁상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4%만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자산의 일부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하겠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고, 사후에 모두 상속하겠다는 응답도 40%나 나왔다.

특히 사후에 상속하려는 경향은 나이가 들수록

## 하나금융연, 재산 5억이상 조사

## 자녀들의 관심 낮아질까 우려

## 국내 총 상속자산 64조원 규모

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전부를 사후에 상속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일부 증여(56.6세)와 전부 생전 증여(58세)로 응답한 사람들의 연령보다 높았다.

특히 이들은 유언장 작성(37.5%)을 통해서보다 사망시점 유언(60.8%)을 통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유언신탁상품(0.8%)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선불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보다 자신의 소유로 붙들고 있으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호하는 증여 및 상속대상 자산으로 부동산이 8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순위 대담까지 고려하면 93%나 된다. 다음으로 예금(4.7%)과 현금(9.3%), 사업체 경영권(2.7%), 주식·채권·펀드(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총 상속자산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2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및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상속자산은 64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상속재산은 2020년이 되면 약 108조원까지 증가해 상속과 관련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인별로 보유한 자산규모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호하는 상속 방법이 다르다”면서 “자산규모가 크면 자녀의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고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증여를 고려하지만, 적으면 본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전부 사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유로존 불확실성 진정

## 삼성전자 실적 양호

## 투자심리 회복 기대

국내주식시장은 지난주 초 총선을 앞둔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국제유가 급락세 등 대외적인 악재와 함께 4분기 국내 기업실적 우려로 장중 코스피 지수 1876포인트 기록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했다.

다행히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락하던 국제유가 진정세,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경기부양 기대감 및 삼성전자의 예상 외 실적 발표는 4분기 실적발표에 힘입어 주중 낙폭을 만회하면서 지난주 대비 1.7% 하락한 1924.70포인트로 마감했다.

연초부터 국제유가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글로벌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국제유가 급락여파는 OPEC산유국의 원유판매가격 하락과 비OPEC 국가의 공급 확대가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유가반등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유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속도조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유로존 양적완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ECB통화정책회의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자산 매입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리고 25일 예정된 그리스 총선에서 제1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집권할 경우 그리스에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리스여론기관 GPO에 따르면 국민의 75.7%가 유로존 탈퇴에 반대하였으며 시리자측이 “이미 그리스 탈퇴 논의는 2012년에 끝났다”고 언급하고 있어 불안감은 다소 희석되고 있다.

미국금리에 대해서는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시장을 안심시켰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경제지표 개선은 지켜봐야 하겠다.

국내에서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15년 경제전망 및 기준금리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률과 물가 목표가 하향조정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번 주 투자전략으로는 대외악재 속에서도 주요국의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 모멘텀과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으로 인하여 투자심리를 다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적시즌을 앞두고 있어 실적호전주 및 주요 정책관련 기대주에 대한 저점매수 고점매도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겠다.



김경신  
〈우리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 주택담보대출 상품 고정금리가 대세

## 연이은 금리 인하 따라

## 은행권 고정 비중 40%↑

## 가계부채 구조개선 시행

직장인 김모(42)씨는 이달 초 새로 구입할 주택 자금을 빌리러 한 시중은행 상담을 받고 일단 발길을 돌렸다. 급여이체·카드실적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김씨에게 적용되는 고정금리가 3.20%로 변동금리(3.23%)보다 다소 저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변동금리가 더 낮을 줄 알았는데 고정금리가 더 저렴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여 부를 한 차례 더 지켜보고 대출상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나 고정금리에 반영되는 추이를 봐서 주택 입주 시기를 정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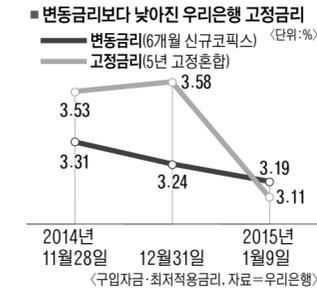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이은 금리 인하나 함께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밀도는 대출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까지 전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이 지난해 초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해 10월 기준 평균 3.31%였던 고정금리가 같은 해 12월 평균 3.20%로 줄어 들었다. 지난 9일 현재 이 은행의 고정금리는 3.00% 수준이다. 반면 변동금리는 코리보 3개월물 기준 3.3%로 고정금리보다 0.3%포인트 높다.

우리은행의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의 9월 고정금리(5년 고정환함)는 3.11%로 변동금리(6개월 신규 코픽스 기준·3.19%)보다 0.08%포인트 낮다. 이 은행의 고정금리는 지난해 말까지 변동금리를 꾸준히 웃돌았다가 첫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 통상 변동금리(코픽스 신규 취급액 6개월 기준)가 장기대출 고정금리



연이은 금리 인하나 함께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밀도는 대출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창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거나 일부 은행은 역전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기준 전체 주택담보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13.6%에서 같은 해 12월 말 21.4%로 증가했다. 이 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낮추고 있다. 대표 고정금리 상품인 ‘포유 5년 비거치식’ 대출금리 최저액은 지난해 22일 3.38%에서 이달

5월 기준 3.28%로 감소 추세다. 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10월 평균 고정금리가 3.18%에서 지난해 3.14%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 9일 기준 대표 고정금리 상품(5년 고정환)의 금리가 3.07%(최저치 기준)다. 반면 11월까지 하락세를 보인 변동금리의 경우 9일 현재 3.5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보여온 변동금리는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직원은 “대표 변동금리 상품 최저 적용금리가 지난해 말 3.1%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 3.3%로 늘었다”고 전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비교 뱅크하우스 대표에 따르면 “만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견된 만큼 이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여행자·자전거·안경보험...

## 전문보험사 생긴다

앞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특정 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이를 통해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국내 시장 진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판매시 인가가 쉽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인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 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이 아닌 연금보험 등 일부 보험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가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상해(자본금 100억원)·질병(100억원)·도난(50억원)·배상보험(50억원) 등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는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손해보험사 인가 요건(자본금 3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쉽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치 만나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CHANEL</p>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b>18</b></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b>20</b></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b>14</b></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b>18</b></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b>16</b></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b>13</b></p> <p>IPTV <b>18</b></p>	<p>꿈을 담은 캔버스 <b>채널A</b></p> <p>www.ichannelA.com</p>
---	--	--	---	--